

“마하보디寺院 불교도에 돌려달라”

인도 스님들 촉구 “불교성지 힌두교 관리 부당”

시위대 힌두교도 사찰 접근 저지

순례중 태국·스리랑카 스님들 동참

얼마전부터 불교도와 힌두교도간의 분쟁이 재연되었던(본지 3월 6일자 참조) 인도 비하르주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에서 사원 운영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인도의 스님 250여 명은 3월 23일 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룬 성자인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힌두교도가 사원의 운영권을 포기할 것을 요

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전인도 승려협회’의 회의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었다. 수레이 사사이(Surai Sasai) 스님이 이끄는 시위대는 사찰 주변을 에워싸고 정부가 이 사찰의 운영권을 불교도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경내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행위를 금지해줄 것 요구하면서 힌두교도의

경내 진입을 막고 있다. 이 시위에는 현재 부다가야에 머물고 있거나 순례차 방문한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등 외국 승려들도 적극 동참했다. 불교사찰해방행동(BSLA) 위원회 사무총장인 아난드(Anand) 스님은 “불교도들은 차별받고 있다.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그리고 기독교도도 각각 자신의 사원을 관리하는데 왜 불교도만 사찰을 운영할 수 없는가?”라고 반문하고, “지난 1949년 제정된 현행 마하보디 사원 운영법을 개정해 사원이 온전히 불교도만의 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세계 힌두교도 연맹(MHP)을 비롯한 힌두 원리주의자들은 ‘불교는 힌두교에서 갈라져 나온 힌두교의 분파이며, 부다는 비슈누 신의 화신일 뿐’이라는 힌두교의 교리를 내세워 불교사원의 운영권이 힌두교도의 손에 있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현행 사원운영법에 따르면 마하보디 사원은 힌두교도 5명과 불교도 4명으로 이뤄진 운영위원회가 관리하며 위원장은 반드시 힌두교도가 맡게 되어 있다. 운영위원들은 3년 임기로 비하르 주(州)정부에 의하여 임명되는데, 특히 가야군(郡)의 힌두교 사제와 위원회의 유일한 평생임기의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다.

마하보디 사원을 힌두교도의 손으로부터 해방시키자는 운동은 이미 지난 92년부터 시작되었고, 작년 11월 말 전인도 승려협회의 회장 수레이 사사이 스님은 사원과 관련하여 3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 있었다. 그 내용은 첫째, 운영 위원회를 즉각 해산할 것, 둘째, 1949년에 제정된 마하보디 사원법(이하 사원법)을 개정하여 운영위원을 모두 불교도로 임명할 것, 마지막으로 사원 건물의 보수였다.

인도=이지은 통신원



○일본 태생의 수레이 사사이 스님 등 250명의 스님들이 3월 23일 마하보디 사원안에서 ‘힌두교도들의 불교성지 관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美 LA 관음사 연화어린이학교 전경.

LA에 새싹포교당 섰다

관음사 부설 연화어린이학교 개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불교와 한국전통문화를 교육하는 최초의 ‘새싹 포교당’이 건립됐다. 지난 3월 4일 개교한 관음사(주지 도안) 부설 연화어린이학교(Lotus Preschool, 원장 이명숙)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2세와 현지 어

린어를 대상으로, 불심을 함양하는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비영리교육재단.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정부 및 L.A.시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았다. 2백여평 규모의 2층건물로 4백여평의 야외시설을 갖춘 연화어린이

2002 평화도보장정단 日 도착

6월 19일까지 10개 도시 순회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개최도시를 걸어서 순례하는 ‘2002 평화도보 대장정단’(단장 원공스님) 일행 12명이 국내 순회를 마치고 25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카페리 부판페리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장정에 들어갔다.

중장일보가 주최하는 이 행사를 이끌고 있는 원공스님(원축사 주석) 등은 26일 시모노세키에 도착, 6월 19일까지 일본 내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를 돌며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

해의불교 담당=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도안스님

학교는 건물 매입과 유아 교육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데 총 17만달러(한화 약 2억2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원은 총 38명이

고 이에 따른 지도교사 5명도 어린이 11명에 1인 교사 체제인 미국의 유아교육법에 따라 선발됐다. 4월초 입학식을 갖는 연화학교는 부산 내원정사유치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민족문화교육과 불교교육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국에서 지원받을 예정이다. 지난 76년 미국 세라노에 포교당을 건립, 최초의 한글학교를 개설한 바 있는 연화어린이학교 설립자인 도안스님은 최근 귀국후 본사를 내방한 자리에서 “20여년간 운영해온 관음사 일요학교의 노하우를 살려 한인 2세들을 위한 포교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문의=1-213-384-8990

캠페인도 벌인다. 이들은 6월 20일 부산항을 통해 귀국, 부산아시아드 경기장-울산 문수경기장-대구중합경기장을 걷는 것을 끝으로 4천 km에 이르는 도보 대장정을 마친다.

대장정단은 원공스님 외에 지은스님(보타사), 입안스님(해인사), 이용우(영상작가), 김광수(저영인), 권영진(저영인), 이창훈(회사원), 윤보현(여, 회사원), 이정우(학생), 이주연(여, 학생), 강찬모(화가), 전경숙(여, 회사원) 등이다.



현재 한국불교에서는 일상의 삶과 수행이 별개의 것처럼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해의 많은 불교단체에서는 수행-봉사-회향의 ‘참여불교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여기에는 종교의 구별도, 출세가의 구별도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삶과 수행, 사회적 회향을 통일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미국의 저명한 불교잡지인 <트라이시클(Tricycle)>이 추천한 ‘참여불교(Engaged Buddhism)’ 관련 불서 다섯 권을 통해 우리 참여불교운동의 방향을 가능해 본다.

<새 천년의 참여불교(Socially Engaged Buddhism for the New Millennium)> <참여불교의 법륜(The Wheel of Engaged Buddhism)> <전체적인 치유(Global Healing)> 등이 세권의 책은 베트남 선사인 틱낫한 스님이 제창한 ‘참여불교운동’의 이념과 실재를 담고 있는 책들이다. 이 책들에 나타난 참여불교의 핵심은 부처님의 거룩한 4성제와 연관된 고통을 깨닫는 것임과 동시에 다국적 기업들과 환경파괴, 언론매체

의 횡포로부터 회생되거나 영웅시된 사람들과 사회 등 중생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일이다. 참여불교 운동가들은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변혁은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세 권의 책은 어떻게 불교의 근본교리이자 덕성인 관용, 자비심, 평화의 도움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고 있다.

<새 천년의 참여불교>는 태국의 참여불교운동을 이끄는 술락 쉬바락 사(Sulak Sivaraksa) 박사에 의해 편집

수행 봉사 회향 참여불교운동 활발

美 저명불교잡지 관련 佛書 5권 소개

된 책으로 프라 담파피카타(Phra Dhammapitaka) 스님의 60회 생일을 기념한 수상집이며, 태국 Sathirakoses-Nagapradipa 재단이 발간했다. <전체적인 치유> 역시 술락 쉬바락 사 박사의 저서로 구조적인

의 이념과 현황, 비전 등에 대해 케네스 크래프트가 쓰고, Weatherhill사가 펴냈다. 이밖에 <연인, 자신과도 같은 세계(World As Lover, World As Self)>는 저자 조안나 메시지가 고

관용·자비심·평화로 사회참여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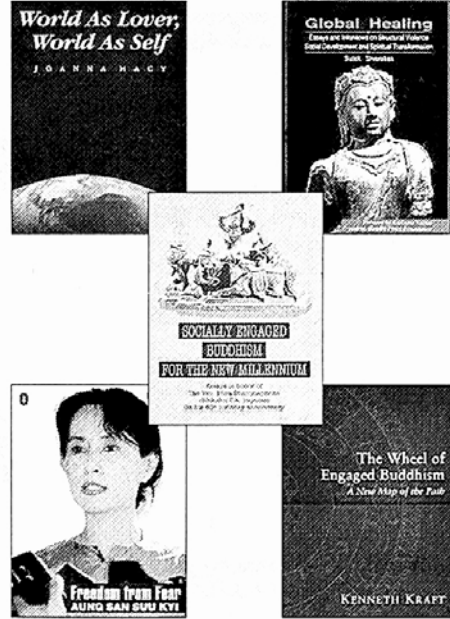
“인과론에 입각 個我는 실체 없는 것”

폭력, 사회적 발전, 그리고 정신적인 변화와 관련한 에세이와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다. 태국 Sathirakoses-Nagapradipa 재단 발간. <참여불교의 법륜>은 참여불교운동

을 발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해 온 삶에서 우리나라 동참력을 에세이로 쏟아낸 책이다. 그녀는 수년간 자연주의 이론과 불교의 인과론을 배움으로써 개아(個我)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 책은 자아를 둘러싼 세상을 향한 최초의 긍정적인 변화와 고통의 종식을 추구하는 노력 가운데서 겪는 세계적인 절망도 암시하고 있다. Parallax 출판사.

<공포와 언론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and Other Writings)>은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여사의 글과 연설문을 모은 책이다. 1962년부터 미얀마 독재정부의 무능과 잔인함에 대해 비난해 온 그녀는 19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영국에서 거주해 온 남편이 죽기 직전에 편집한 이 책의 글과 연설들은 인간적,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모두 불교적인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펜겐 출판사.



상표등록

미슈타

반도체 반도체 안전 전자 인증

설치 2~3주전에 미리 각 지역 대리점에 연락주시면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서비스
기술 지원 팀
011-9996-8872

◆본 미슈타 반도체 안전 전자 인증은 상표 실용, 위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를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외에 총 13건)

- 서울, 경기 서부대리점
성남 031-756-6307
- 서울, 경기 동부대리점
하남 031-791-8871
- 부산, 경남 동부대리점
밀양 055-355-6707
- 경남, 서부대리점
마산 055-224-5286
- 대구, 경북 남부대리점
053-591-4861
-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764-9396